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8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등불의 비유

(루카 8,16-18)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21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를 부르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저희를 지혜로 밝혀 주시는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 주님 빛으로 오시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삶의 이야기

진행자 아래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빛과 그림자〉



〈어둠 속의 빛〉



〈안내견〉



〈빛으로 오신 주님〉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까지 읽어 주십시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 1) 등불을 켜는 일은 말씀을 내안에 받아들일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생활하여 주변을 밝게 비추는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인을 받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신분을 감추셨지만(메시아의 비밀) 그분은 등불이시므로 결국 세상을 비추게 마련이며 그분이 한동안 당신 정체를 숨기셨지만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 모세, 세레자 요한을 등불로 비유합니다. 세상

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또는 “세상의 빛”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참 빛은 누구인가요? 이 세상 마치고 하느님 곁으로 가는 날, 온갖 물질적인 욕심과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느라 영적인 부를 쌓는 데 소홀하여 조금 모은 영적인 부분마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빛을 쫓아 살고 있는가요?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있는가요?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니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를 부릅니다.



궁금
했어요

봉헌자는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며 사제에게 절을 하는데 모든 신자들도 절을 해야 하나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미사에 사용될 빵과 포도주를 각자 마련하였습니다. 성직자 부양을 위한 예물과 자선예물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한, 예물도 손수 준비하여 미사에 참례하였지요. 함께 상을 차리고 준비하는 ‘주님의 만찬’이었기에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세기 화폐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후대가 간편한 헌금으로 예물봉헌이 가능해졌고, 신자수의 증가로 인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예물을 봉헌하도록 조처한 것이 오늘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거룩한 떡’(레위 24,5-7참조)입니다. 순결하고 경건한 우리 마음을 제물로 원하시지요. 때문에 예물의 봉헌이야말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지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거룩한 밀떡으로 봉헌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몰입의 시간이 되어야 옳습니다. 봉헌예식에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자와 함께 깊은 절을 올리기를 권합니다.



봉헌의 참뜻을 이해한 바르고 아름다운 예절이라 생각합니다. 미사의 은총에 몰입하도록 도와주니 더욱 좋은 일이지요. 봉헌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과 감사의 시간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적극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곤소곤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장재봉 신부)

모든 반원은 하늘 나라의 겨자씨

- 장평성당 2구역 광우반 -

- 진미금 에델브르가(장평성당 2구역 광우반)

1994년 4월 장평본당이 설립되던 당시 새로 지어진 광우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2구역 광우반이 구성되었습니다. 처음 초대 반장을 맡았던 홍요안나 자매님은 반모임을 구성하기 위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신자와 냉담자를 파악하고 새 신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주보와 신앙 서적을 구입하여 우편함에 꽂아 두기도 하고 2인 1조로 가정방문을 하여 주보와 책자를 건네주며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냉담자를 이끌어 미사와 반소공동체 모임에도 나오게 하고, 어려운 교우나 환자를 자주 방문하여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안나 자매님께 참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전출, 전입이 많아 17세대 9~10명 반원들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공동체 반모임을 시작할 때에는 복음나누기를 어려워하고 서먹서먹해 하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생각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친구들이나 형제에게는 감히 말할 수 없던 이야기들도 털어놓곤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광우반원들은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에 아주 열심입니다. 반원 행사를 앞둔 때나 힘들고 어려운 일 혹은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가정을 위하여 함께 모여 9일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야유회와 성지순례도 다녀오기도 하고 부부동반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송년회를 가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한마음이 되어 축복의 잔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지요.

개신교 신자였다가 교리반에 입교하여 세례를 받은 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계신 실비아 자매님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기에 바쁘시지만 반모임에는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반원들이 찾아가 꽃바구니 만들기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18년 동안 결석 한 번 없으셨던 프란체스카 할머니께서는 팔순을 앞두고 계신 저희 반 큰 언니신데 오직 하느님만을 믿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귀감이 되어주시는 어르신이 계시기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또 지금은 예비자 두 분이 세례를 준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반원들 대부분이 주인의식이 투철하고 본당에 대한 애착이 많아 성인복사단과 주일학교 교사회, 제대회, 성가대, 성체조배실 꽃꽂이, 레지오 활동 등 성당 내 활동은 물론이고 교구연령회와 사회복지관에서도 봉사를 하시는 등 10년 넘는 세월을 오롯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시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를 바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진국 중에 제일 진국인 광우 2구역 반원들. 어디에서나 하느님만이 아시는 낮은 자리에 겸손히 자리하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저희 반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처음 마음 변치 않으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봉사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깨닫고 늘 파견된 사람,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뿌려진 작은 씨앗들임을 잊지 않는 공동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장평성당 2구역 광우반 반원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